

브라질·미국 ‘소두증’ 공동 연구 착수

양측 전문가 30명 참여
지카바이러스 연관성 입증
브라질서만 462명 확진 판정
WHO, 박테리아 활용 권장

브라질과 미국의 보건 당국이 신생아 소두증과 지카 바이러스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공식으로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브라질 보건부는 이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공동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르셀루 카스트루 브라질 보건장관은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유럽연합(EU) 24개국 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연구는 브라질 북동부 파라이바 주에서 진행되며, 양측에서 30명 정도의 전문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이바 주는 페르남부쿠 주에 이어 소두증 의심 사례가 두 번째로 많이 보고된 지역이다.

브라질 보건부는 “이번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는 소두증과 지카 바이러스의 연관성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두증과 지카 바이러스의 연관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카스트루 장관은 “브라질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카스트루 장관은 또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집트 숲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軍 ‘모기와의 전쟁’ 16일(현지시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이집트 숲 모기’ 박멸 작업을 벌이는 한 군인이 방충제를 손에 바르고 있다. 마르셀루 카스트루 브라질 보건장관은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유럽연합(EU) 24개국 대사들을 만난 가운데 브라질과 미국의 보건 당국이 지카 바이러스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집트 숲 모기는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열병, 치쿤구니아 열병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서는 군 병력까지 동원돼 ‘이집트 숲 모기’ 박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집트 숲 모기 번식을 방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브라질 보건부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보고된 소두증 의심 환자는 507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4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환자 가운데 41명은 지카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765명은 정상이거나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 없는 기형인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85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두증이나 신경계 손상으로 신생아 24명이 숨졌으며, 59건의 신생아 사망·사산 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의 마거릿 찬 사무총장은 오는 23~24일 브라질을

방문해, 브라질 정부의 지카 바이러스 확산 억제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WHO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유전자 변형 모기와 곤충을 감염시키는 ‘윌비키아’ 박테리아 등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WHO는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와 인근 국가에서 기존 방식과 함께 방사선으로 조사된 수컷 모기를 방사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루비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정치광고 화면 ‘캐나다 도시’ 망신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내보낸 정치광고의 배경 화면이 캐나다 도시인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비오 의원 쪽이 ‘미국에 다시 아침을’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이 광고는 미국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4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용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미국에 새 아침을’이라는 광고를 흉내낸 것이다. 하지만 광고에 첫 머리에 등장하는 배경 도시가 미국이 아닌 캐나다 밴쿠버인 것으로 드러나 루비오 의원에게

망신살이 뻗은 것이다.

화면이 캐나다 국기를 단 예언선이 밴쿠버 항구를 지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보이기 때문이다. 이 화면은 캐나다의 한 영상제작자가 지난해 촬영한 것이다. 그러자 루비오 의원의 선거본부는 배경 화면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9월 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하는 한 단체는 영국 주식시장 화면을 사용한 광고를 내보냈으며 이민 제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도 지난해 1월 방영한 선거광고에 미국 국경의 모습이 아닌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온 난민의 화면을 사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연합뉴스

골드만삭스 “금융시장 공포 과하다”

“지금은 금 팔때” 조언

새해 들어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안전 자산’으로 인식돼 온 금값이 급등세를 보였으나 시장의 공포가 과도하다며 금을 팔라는 조언이 나왔다고 CNBC가 17일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제프리 쿠리와 맥스 레이트너 상품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원유와 중국, 마이너스 금리 등이 금융 시스템 위험을 촉발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공포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은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비할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고, 여유가 아닌 부정한 경제적 여파는 시장에 반

영된 만큼 시스템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도 제한적이며, 미국 경제는 침체와는 거리가 멀어 지금이 금을 매도할 때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이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를 인용해 시장의 반응이 과도하며, 금값이 올해 상승 뒤 곧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 13.5%나 치솟았다.

지난 11일 금 선물가는 5% 가까이 올라 7년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현재 온스당 1208달러대까지 상승 폭을 줄인 상태다. /연합뉴스

미군 오산 기지 배치 F-22기는?

스텔스 기능 갖춘 ‘5세대 공중전 지존’

‘공중전의 지존’, ‘유일한 슈퍼 크루징 기종’, ‘대당 4000억 원이 넘는 최고 기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으로 조성된 최근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오산 주한 미공군 기지에 배치되는 스텔스 기종의 F-22A 랩터에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대당 가격이 3억6000만 달러(4370억 원)나 돼 미국 조차 연습기 8대를 포함해 195대에밖에 운용하지 못하는 F-22A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탁월한 공중전 능력이다.

F-22A는 지난 2007년 1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있던 합동군사훈련(노든 옛 지)의 모의공중전서 한 대가 대항기로 나선 F-15, F-16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키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워 공중전 지존이라는 영예를 얻었다.

모의 공중전서 출격한 F-22A기는 대항기보다 훨씬 원거리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었지만, 상대기들은 접근 사실조차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언 블러라는 핵심 스텔스 기능 덕택에 적의 추적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데다 레이더에도 발이나 풍량이 정도의 크기로 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과 보잉이 공동 제작한 5세대 전투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2.5 이상, 항속거리가 3219km나 되는 랩터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길이/폭/높이	18.9m/ 13.6m/ 5.1m
최대속도	마하 2.5 이상
작전반경	3,218km
탑승인원	1명
주요 탑재무기	20mm M61A2 기관포 1문, AIM-9 사이드와인더 2발, AIM-120 암람 6발 등

또 에프터 버너(재연소)없이 초음속으로 순항할 수 있는 슈퍼 크루징이 가능한 유일한 전투기다.

에비어니스트(The Avionist)와 밀리터리닷컴 등 미국의 군사 과학 전문매체에 따르면 F-22A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240차례 이상의 정밀공습 작전을 했다.

정밀공습작전에서 전기를 발휘한 곳은 바로 시리아다. 두 발의 1000 파운드(453.5kg)짜리 합동정밀직격탄(GBU-32 JDAM)이나 8발의 SDB GBU-39 소형 정밀폭탄 등을 장착한 F-22A는 단독으로 IS 지휘소 등 표적을 성공적으로 정밀타격했다. /연합뉴스

“사드배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격”

中 언론, 한국 강력 비난

중국이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언론이 분석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매체인 ‘헝커도’(侠客岛)는 17일 ‘미국과 한국의 사드 시스템이 중국에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이미 한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고 이는 충분한(방어) 능력을 지녔다”며 “사드는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드의 X-밴드레이더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역, 러시아의 극동 지역까지도 탐지할 수 있다며 “이는 중

국의 미사일 발사가 모두 사드에 의해 탐지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사드를 이용해 중국의 미사일 정보를 “풍부하게” 얻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드의 한국 배치에는 곧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 완성이라는 전략적 의미도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을 이용한 ‘해상 MD’와 미국 본토에 대한 ‘중간단계(中段, middle course) MD’를 구축했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다중 MD’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해 동아시아의 ‘저층 MD’도 완성한 상황이다.

헝커도는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동유럽판 MD가 동아시아 지역에 ‘복제’되는 것을 뜻한다며 “지역의 공격과 방어의 전략적 균형은 아마도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지리산, 온천지구 모텔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현재 휴업상태,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융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리모델링 후 (3억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오피스텔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융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3백만원 임대중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20층, 76평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사무실 전용
- 매매-2억2천만원
- 투자가치높음

주인직거래 H. 010-3605-5000